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색채특성과 배색이미지

서 인 경 ·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The Image and Color Characteristic of Fashion Tinged with Beige

Inkyung Seo · Youngin Kim⁺

Doctoral Cours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투고일: 2011. 12. 31, 심사(수정)일: 2012. 2. 20, 게재확정일: 2012. 3. 20)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define the color range, images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beige in fashio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beige that appears in contemporary fashion. In reference researc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color name and range of beige was examined. In investigation research, color characteristics and images of beige that appear in contemporary fashion was defined, a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cases that the use of beige took more than 50% of the entire in the major collection from S/S season in 2007 to F/W season in 2010 as the subject of color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lor range of beige consisted of the standard color from 2.5YR to 5YR, and color tone was pale and light gray. Second, the analysis of color beige that appear in contemporary fashion didn't show big differences according to year, season, and region. The color tones consisted of light grayish, pale, light, soft focusing colors from 5YR to 10YR. As for the arrangement of colors, it was arranged with black and it was used with the affiliation of YR, R, Y in many cases. Third, beige monochromatic image appeared soft, plain and classic. The arrangement of the image, modern, feminine, luxurious, gentle, intelligent five types were derived. Arrangements with achromatic colors were expressed in contemporary and sophisticated styles and arrangements with chromatic colors appeared to be soft, feminine and luxurious. This study draws the result to apply the fashion image of beige that was insufficient in other various color researches to design various color aspects by defining the image of beige that appears in contemporary fashion. Based on practical analysis for the color beige, it is evident that beige is an important factor and a powerful influence on fashion images.

Key words: beige(베이지), beige image(베이지 이미지), color(색채), fashion(패션)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Youngin Kim, e-mail: youngin@yonsei.ac.kr

I. 서론

1990년대 들어 디자인의 감성적 요소인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에코 트렌드 등의 확산으로 가공되지 않은 친환경 색채로서 베이지(beige)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루어진 색채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주로 빨강, 파랑, 노랑, 녹색 등과 같은 순색에 국한되어 있으며, 패션영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2차색, 3차색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지는 선호색으로서의 중요성은 높지 않지만 편안함과 안락함을 지니고 있어서 과거부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색의 하나이다. 원경미 외¹⁾의 국내 패션업계 활용색 조사에서 베이지와 카키(khaki)는 기본색명보다 높은 활용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베이지의 색상분포는 YellowRed부터 Yellow까지 나타나지만 멘셀 시스템에서 순색의 5YR 색상영역보다는 노랑에 가까운 10YR에서 2.5Y의 명도 6, 채도 3에 해당하는 색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베이지는 많이 활용되는 색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와 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색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이지의 정의와 범위를 조사·비교하여 베이지의 색 영역을 명확히 하여 베이지의 색채특성과 배색 이미지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는 학문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베이지는 보색끼리의 혼합이거나,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중간색이며 관용색명이기 때문에 계통색명으로 구분되는 색영역 체계로 규정하기가 모호하다. 그러므로 사전 및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베이지의 색명과 색영역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 베이지의 사전적인 색영역을 조사하였다. 조사자료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4개 국가에서 제작한 표준색표집과 일본의 신색명사전에 나타난 베이지의 범위를 분석하여 베이지의 색영역을 종합·정리하였다.

현대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베이지의 단색 및 배색 이미지 분석은 베이지의 색영역 분석을 토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대 컬렉션(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에 나타난 베이지를 수집하여 사례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컬렉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색상/색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 실시 후 배색이미지별 패션스타일과 배색 팔레트를 제안하였다.

베이지의 색영역 범위 규명을 위한 분류기준은 멘셀색체계 R(Red), YR(YellowRed), Y(Yellow), GY(GreenYellow), G(Green), BG(BlueGreen), B(Blue), PB(PurpleBlue), P(Purple), RP(RedPurple)의 40색상환을 사용하였다. 색조는 멘셀의 색의 3속성 값을 전환해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색조 분류에 의하여 p(pale), lt(light), b(bright), v(vivid), s(strong), dp(deep), dk(dark), dkg(dark grayish), g(grayish), ltg(light grayish), sf(soft), d(dull)의 12색조로 분석하였다.

II. 베이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베이지의 일반적 특징

베이지의 어원은 프랑스어 '베쥬(beige)'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밝은 갈색을 가리키는 베이지는 원래 '거칠다'는 의미로(Heller)²⁾ 13세기에 염색과 표백이 되지 않은 천연 양모를 형용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널리 사용된 것은 19세기 초엽부터이나 지금도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남부 브르타뉴 지방에서는 베이지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베이지를 노랑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Pastoureau)³⁾ 또한 1872년 리트레(Littré) 사전에는 '지방에 따라 베이지색 천을 노란 천이라고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1887년 미국에서 베이지라는 용어가 처음 문헌에서 나타났고, 1915년 미국의 SCCA(Standard Color Card of America)에 기본색으로 제시되었다. 1920년 이전에는 주로 뉴트럴(Neutral)계열의 색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으나 1920년대부터 의미가 확산되어 연하고 밝은 크림색에서 밝은 갈색 계열까지 의미하고 있다(위키피디아).

동아프라임 영어사전에서 베이지는 '낙타색, 베이지색'이라 정의하고 '염색이나 표백을 하지 않은 원

모(原毛)로 짠 모직물'을 의미한다.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는 'with a light(pale) brown colour'로 갈색계열의 연한 색으로 정의한다. 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에서는 'very light brown'으로 염색하지 않은 모직물 따위의 옅은 다갈색, 'light gray with brownish tinge'로 옅은 갈색을 띤 회색으로 명명하고 있다. 갈색은 주황과 검정을 혼합한 색인데, 영어사전에서 베이지는 갈색에 흰색이 더 섞인 밝은 계열의 갈색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소형⁴⁾의 연구에서 갈색(褐色)은 두 가지의 보색이 혼합될 때 만들어지거나 빨강과 노랑, 검정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색조의 중성색이다. 빨강과 녹색을 섞어도, 보라와 노랑을 섞어도, 파랑과 주황을 섞어도, 아무 색이나 검정을 섞어도 갈색이 나온다. 이러한 갈색의 선명하지 못한 특성 때문에 갈색계열의 색은 색채로 인식하지 않았다.(Birren)⁵⁾ 옅은 갈색계열인 베이지 역시 색으로 인식되지 않아 그림의 배경색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올란데 야코비(Jolande Jacobi)는 갈색이 색 스펙트럼에 포함되지 않지만 중요하고 표현범위가 광범위한 색들 중의 한 가지라고 언급했다. 베이지 역시 옅은 갈색으로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다른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에크루'(ecru)는 연한 베이지에 가까워 1910년 이전에 베이지를 표현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지만, 1910년 이후에는 '베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공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ex와 cru가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불어로 정착했고, 각종 섬유류의 표백하지 않은 원상태의 실이나 포목의 색을 의미한다. 그레쥬(grège)도 본래 불어로, 표백이나 염색을 하지 않은 원래의 직물이나 천의 색으로 거의 비슷한 뜻이나 19세기 후반에 염색업의 기술용어가 되어 구별하게 되었다. 신색명사전에서 에크루는 각종섬유의 그대로의 색, 베이지는 주로 같은 상태의 모직물의 색, 그레쥬는 명주의 미가공 상태의 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로즈 베이지(rose beige)나 프렌치 베이지(french beige)처럼 회갈색 계열도 사물명칭과 베이지 용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베이지의 대응용어로는 '뉴트럴 컬러(neutral col-

or)'와 '내추럴 컬러(natural color)'가 많이 쓰인다. 뉴트럴 컬러는 보색이나 블랙을 혼합하여 탁해지거나 중성화된 색상을 일컫는데 주로 무채색에 가까운 저채도의 베이지 계열과 스킨컬러 계열이 주를 이룬다.

장 필립 랑크로(Jean Philippe Lenclos)⁶⁾의 르노 자동차의 한정 시리즈를 위한 색채와 소재의 연구에서 내추럴 컬러는 환경디자인과 건축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슈퍼 5'의 고급사양을 제시할 때 베이지를 적용한 외관과 인테리어의 배색을 제시하였고, 300호 집합주택의 색채계획에서는 베이지를 명도 단계별로 적용한 배색을 볼 수 있다. 이는 환경디자인과 건축디자인에서는 베이지를 사용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제시하기보다는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편안한 색으로 여겨 넓은 면적에 사용하며,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반면 제품디자인에서 베이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나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2. 베이지의 색명

이만영 외⁷⁾의 연구에서 색명은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문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게 되므로 같은 색명일지라도 인종·지역·풍습·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을 의미하게 되며 같은 색상일지라도 명도와 채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베이지의 어원은 서양의 관용색명에서 왔기 때문에, 명칭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명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갈색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으로 인식하여 문헌에서도 직접적으로 베이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사전이나 표준색에서 베이지에 대한 자료를 발췌할 때는 아래의 3가지 기준을 적용하였고 육안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직접적으로 '베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경우, 베이지의 관용어(노란색, 크림색, 모래색, 비스킷색, 오프화이트, 에콜로지, 파우더, 버프(buff), 낙타색(camel)등)를 사용한 경우와 '밝은 갈색' 계열의 색을 의미하면 모두 자료로

선정하였다. 갈색계열로서의 베이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밝은'에 해당하는 형용사로는 '밝은, 옅은, 연한, 흐린, 탁한, 회색의' 등이 있으며 해당영문으로는 'soft, light, pale, grayish'로 제한하였다. 색명(color name)은 수만 가지의 색채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언어화한 것으로 사람간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4개국의 표준색에 나타난 베이지의 색명과 범위를 조사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공업규격(KS) 표준색명과 미국의 ISCC-NBS 시스템의 색명법, 일본의 JIS, 독일의 RAL COLOR, 그리고 국내의 문헌과 색사전을 통해 베이지의 색영역을 살펴봄으로써 베이지에 대한 보다 넓은 해석학적 이해와 범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ISCC-NBS는 세계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RAL COLOR는 독일에서 발행된 표준 색표집으로 유럽의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선정하였다.

3. 베이지의 범위

1) 한국산업규격(KS)의 베이지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KS 색이름 체계(KS A 0011)는 1964년에 제정되고 2010년 12월 14일에 최종 개정된 것으로 특히 표면색의 색 이름을 규정하며 투과색의 색이름도 준용할 수 있다. 색 이름은 유채색과 무채색의 계통색 이름, 관용색 이름으로 구별한다. 물체색의 색이름의 표준인 KS A

0011을 참고하였다.

KS 계통색명(系統色名)의 색상범위에서 관용색명인 '베이지'에 대응하는 것은 '흐린 노랑'이며 먼셀값은 2.5Y 8.5/4이다. 계통색명의 유채색에 해당하는 기본색 이름은 노랑이며 형용사를 조합한 색채표현으로는 흐린 노랑과 연한 노랑이 있다. 색상범위는 2.5Y~7.5Y이다. 베이지가 저채도의 고명도 색조인 것을 고려하여 기본색이름에 회색을 조합하면 노란 회색이 되는데 색상범위는 10YR~2.5GY에 해당한다. 그 외에 베이지에 대응하는 계통색명으로 '밝은 갈색', '연한 갈색', '흐린 갈색', '탁한 갈색'이 있다. 색상범위는 2.5YR~2.5Y로 나타나며 4가지 색이 모두 겹치는 범위는 5YR로 나타난다. 조합색이 '노란 갈색'인 경우는 모두 색상 범위는 10YR~7.5Y로 나타나고, 기본색이 '노랑'인 경우는 10YR~2.5GY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베이지는 기본색이나 조합색의 명칭에 따라 색상의 범위가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분포는 2.5Y~7.5Y계열에 더 많은 빈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1>, <표 2>, <그림 1>과 같다.

관용색명(慣用色名)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쉬운 실생활에 맞는 색명으로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연상어로 만들어지거나, 이미지의 연상어에 기본적인 색명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식물, 동물, 광물 등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과 시대, 장소, 유행같은 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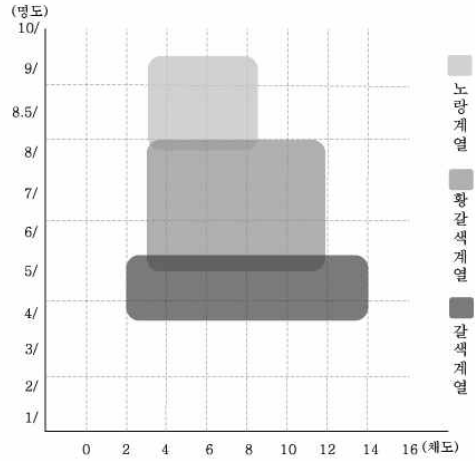
<표 1> 계통색명에 나타난 베이지의 색상범위(KS A 0011, 2010)

기본색 이름	조합색이름	수식형용사 적용 색채표현	색상범위	PCCS
갈색	-	밝은 갈색	5YR~7.5YR	b
		연한 갈색	2.5YR~5YR	p
		흐린 갈색	2.5YR~7.5YR	sf
		탁한 갈색	2.5YR~2.5Y	d
	노란 갈색	밝은 황갈색	10YR~7.5Y	b
		연한 황갈색	10YR~7.5Y	p
		흐린 황갈색	10YR~7.5Y	sf
		탁한 황갈색	10YR~7.5Y	d
노랑	-	연한 노랑	2.5Y~7.5Y	p
		흐린 노랑	2.5Y~7.5Y	sf
	회색 띠 노랑	-	10YR~2.5GY	ltg

KS A 0011에 나타난 3속성 Munsell값을 PCCS tone으로 전환하고 색표를 추가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표 2> 계통색명에 나타난 베이지의 색상분포(KS A 0011, 2010)

계통색명	YR				Y				GY
	2.5	5	7.5	10	2.5	5	7.5	10	2.5
밝은 갈색									
연한 갈색									
흐린 갈색									
탁한 갈색									
밝은 황갈색									
연한 황갈색									
흐린 황갈색									
탁한 황갈색									
연한 노랑									
흐린 노랑									
회색면 노랑									



KS A 0011에 나타난 3속성 Munsell값을 PCCS tone으로 전환하고 색표를 추가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 계통색명에 나타난 베이지의 색조분포 (KS A 0011, 2010)

<표 3> KS 관용색명의 색상범위 중 베이지(KS A 0011, 2010)

관용색명	계통색명	대응영어	대표적인 색의 3속성 (Munsell)	PCCS	색표
베이지 그레이	황회색	Beige Gray	2.5Y 7.0/.01	ltg	
모래색	회황색	Sand	2.5Y 7.0/2.0	ltg	
베이지	흐린 노랑	Beige	2.5Y 8.5/4.0	p	
크림색	흐린 노랑	Cream	5Y 9.0/4.0	p	

KS A 0011에 나타난 3속성 Munsell값을 PCCS tone으로 전환하고 색표를 추가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유래된 것이 있다.

베이지의 관용색명의 색이름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색상은 2.5Y~5Y까지의 범위를 보이고 명도는 7~9, 채도는 1~4까지로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색조는 p와 ltg에 한정되었다. 이는 일본 신색명사전

에서 나타나는 색조와 유사하나, 색상은 Y계열이 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2) 일본공업규격(JIS)의 베이지의 범위

일본공업규격에서 물체색에 대한 표준은 JIS Z

<표 4> JIS 관용색명의 색상범위 중 베이지(JIS Z 8102, 2001)

관용색명	계통색명	대응영어	대표적인 색의 3속성 (Munsell)	PCCS	색표
エクルページユ	うすい赤みの黄	ecru beige	7.5YR 8.5/4	pl	
バフ	やわらかい赤みの黄	buff	8YR 6.5/5	sf	
ページユ	明るい灰みの赤みを帯びた黄	beige	10YR 7/2.5	lg	
クリームイエロー	ごくうすい黄	cream yellow	5Y 8.5/3.5	vp	

8102 : 2001에 따른다.

관용색명에서 베이지에 해당하는 색은 총 4가지로 다양한 색조로 나타났다. 색상은 신색명사전과 동일하게 YR계열이 더 많은 빈도를 보인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3) ISCC-NBS의 베이지의 범위

ISCC-NBS 색명법은 미국색채협의회(Inter-Society Color Council)와 미국 국립 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이 공통으로 계통화한 색명법으로 1932년부터 검토되어, 1939년에 색이름 부르는 법(Method of Designation Color)으로 발표되었다. 그 후 점차적으로 각 방면으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여 1955년에 공표된 것이 색이름 사전(Dictionary of Color Names)으로써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색이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색명법은 먼셀의 색입체를 267개의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마다 예술·과학·산업부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이름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먼셀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색이름 들은 무채색의 명도단계를 white(W), light gray(l.Gy), medium Gray(med.Gy.), dark gray(d.Gy.), black(Bl.)으로 나누고, 색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이들 앞에 붙여서 채도가 아주 낮은 유채색을 표시한다. 색상의 이름은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Violet, Purple 등을 기본 색상으로 하고 그 외 Pink, Brown, Olive 등을 보조 색상으로 추가한다. 이들의 이름은 pinkish, reddish, orange, brownish 등의 형용사로 수식되기도 한다.

동일 색상 면에서 색채의 명도는 moderate를 중심으로 명도가 높은 것은 light(l.), 명도가 낮은 것은 dark(d.)로 표시하고 여기에 very를 붙여서 very light(v.l.)와 very dark(v.d.)를 추가한다. 색채의 채도가 높은 것은 strong(s.), vivid(v.)로 되어있고 채도가 낮은 것은 grayish(gy.)로 되어있다. 명도와 채도에 따라서는 pale(p.) 또는 light grayish(l.gy.), dark grayish(d.gray.), blackish(bl.), brilliant(brill.), deep(d.p.)로 구분되며, 여기에 very를 사용하여 very pale, very deep을 쓴다(Kelly&Judd 1955).

ISCC-NBS 색명법에 베이지(beige)에 대응하는 계통색명은 베이지에서 5개, 라이트 베이지에서 2개로, 총 7개로 나타났고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색상범위는 6.4YR~4.7Y로 나타나고 명도는 4.9~9.0까지의 단계를 보이며, 채도는 2.2~7.9까지의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색명 Light Olive Brown(색표번호 94)을 제외하고는 증명도의 저채도에 해당하는 색조를 보이고 있다.

4) RAL COLOR의 베이지의 범위

RAL COLOR는 독일에서 발행된 표준 색표집으로 유럽의 산업계, 특히 독일 문화권 지역에서 활용된다. 1927년 'RAL 840'의 40색을 시작으로 1930년 수정된 'RAL 840 R', 1961년 정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는 'RAL 840 HR'은 210색을 제시하고 있다. 색상코드 구성 체계는 RAL + ## ## (4자리 숫자)로 색상번호를 표시하는데 번호의 첫째자리 숫자는 색상을 의미하고 둘째부터 넷째자리 숫자는 색의 일

<표 5> ISCC-NBS의 베이지

분류어	색표 번호	일반색명	대표적인 색의 3속성 (Munsell)	PCCS	색표	
베이지 (Beige)	60	l.gy.Br	Light Grayish Brown	6.4YR 5.4/2.2	g	
	79	l.gy.yBr	Light Grayish Yellowish Brown	9.7YR 6.4/2.5	ltg	
	94	l.OlBr	Light Olive Brown	2.1Y 4.9/7.9	dp	
	90	gy.Y	Grayish Yellow	4.4Y 7.2/3.8	ltg	
	89	p.Y	Pale Yellow	4.7Y 9.0/3.8	p	
라이트 베이지 (Light Beige)	79	l.gy.yBr	Light Grayish Yellowish Brown	9.7YR 6.4/2.5	ltg	
	90	gy.Y	Grayish Yellow	4.4Y 7.2/3.8	ltg	

ISCC-NBS에 나타난 3속성 Munsell값을 PCCS tone으로 전환하고 색표를 추가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표 6〉 RAL 840 HR에서의 베이지

색 명	대표적인 색의 3속성(Munsell)	PCCS	색표
RAL 1000 Green beige	2.5Y 8/4	ltg	
RAL 1001 Beige	10YR 7/4	ltg	
RAL 1002 Sand yellow	10YR 7/6	lt	
RAL 1011 Brown beige	7.5YR 6/6	sf	
RAL 1019 Grey beige	8YR 6/2	ltg	
RAL 1024 Ochre yellow	10YR 6/6	lt	

RAL 840 HR에 나타난 색을 연구자가 3속성 Munsell값과 PCCS tone으로 전환하고 색표를 추가하여 재구성

련번호를 표기한다.

RAL 840 HR에서는 베이지에 해당하는 색은 총 6가지로 나타났다. 색상은 7.3YR~2.5Y의 분포를 보이며 색조는 ltg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정리한 내용은 〈표 6〉와 같다.

5) 기타

신색명사전(新色名事典)은 재단법인일본색연구소에서 발간한 자연물의 명칭을 통해 나타나는 관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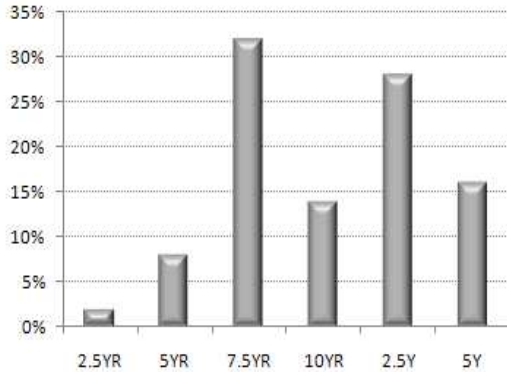
명을 계통색명으로 분류하여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혹은 사용한 용어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색사전이다. 계통색명의 명칭은 일본의 PCCS tone에서 보이는 영어를 사용하였고, 각 자연물의 명칭에 관련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유래를 기반으로 색에 대한 인문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eige'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색은 총 5가지였으며 4개가 8YR이고 1개가 4YR이다. 명도는 7.5~9.0, 채도는 2.0~3.5까지로 고명도의 저채도 색조인 p와 ltg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색상은 2Y~8YR까지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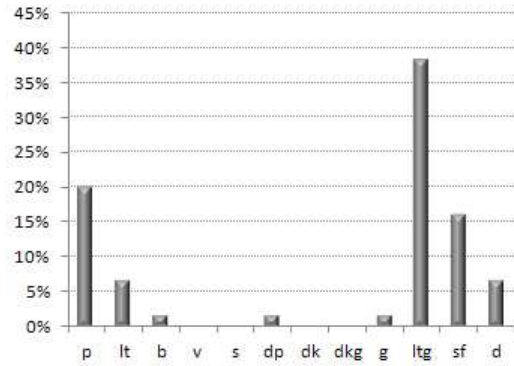
〈표 7〉 신색명사전의 베이지

색 명	대표적인 색의 3속성(Munsell)	PCCS	색표
82. soft orange	4YR 6.5/6.5	lt	
83. soft orange	8YR 7.0/6.5	lt	
84. pale beige	8YR 9.0/2.0	p	
85. pale beige	8YR 8.5/2.0	p	
86. pale beige	8YR 8.5/3.5	p	
87. beige	4YR 7.5/2.0	ltg	
88. beige	8YR 7.5/2.0	ltg	
92. light yellowish brown	8YR 6.0/6.5	d	
107. light grayish brown	4YR 6.0/2.0	ltg	
108. light grayish brown	4YR 6.0/3.5	ltg	
109. light grayish brown	8YR 7.0/2.0	ltg	
110. light grayish brown	8YR 6.0/2.0	ltg	
111. light grayish brown	8YR 6.5/3.5	ltg	
130. pale reddish yellow	2Y 8.5/2.0	p	
146. soft reddish yellow	2Y 7.5/6.0	sf	
149. soft reddish yellow	2Y 8.0/6.0	sf	
155. grayish yellow	2Y 7.5/2.0	ltg	
156. grayish yellow	2Y 6.5/2.0	ltg	
157. grayish yellow	5Y 8.0/2.0	ltg	
158. grayish yellow	5Y 7.5/2.0	ltg	
159. grayish yellow	5Y 6.5/3.0	lt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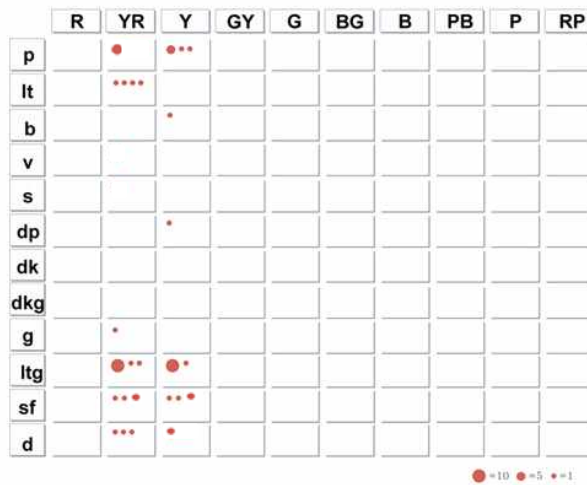
신색명사전에 나타난 3속성 Munsell값을 PCCS tone으로 전환하고 색표를 추가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2〉 사전과 표준색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색상 분포



〈그림 3〉 사전과 표준색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색조 분포



〈그림 4〉 사전과 표준색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색상·색조 분포

나며 YR이 62%, Y가 3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빈도순으로는 8YR(9), 2Y(5), 4YR(4), 2Y(3)의 순서이며 8YR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색조는 빈도순으로는 ltg(12), p(4), lt(2), sf(2), d(1)로 ltg가 57%로 많으며, 이는 YR과 Y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신색명사전에서 대표 베이지는 p이나 ltg톤의 8YR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색상과 색조의 분포를 보았을 때 색명에 갈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밝고 연한 색조의 갈색을 베이지라고 하지만 색명에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탁하고 흐린 색조의 노란색을

베이지라고 하고 있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7〉와 같다.

위의 문헌연구에서 정의한 베이지의 분포를 종합해서 정리한 결과, 색상은 2.5YR~5Y범위이며 Y가 48%, YR이 52%로 나타났다. PCCS 색조는 ltg(38%)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베이지는 2.5YR~5Y계열의 중명도 저채도 색조를 가진 색으로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다.

4개국의 표준색에서 베이지의 범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색조의 범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색상의 분포에서

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신색명사전과 JIS에서는 8YR 계열의 Itg, p 색조를 중심으로 베이지의 범위가 형성되어 있고, 한국의 KS에서는 2.5Y~5Y계열을 중심으로 베이지의 범위가 분포되어 있다. 미국의 ISCC-NBS는 Y와 YR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독일의 RAL은 YR이 더 많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의 베이지보다 채도변화가 있는 다양한 색조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따른 색에 대한 감성과 환경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아래의 <그림 2>, <그림 3>, <그림 4>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공업규격의 계통색명에 해당하는 베이지의 색상은 각 색명에 대한 정확한 색상범위가 주어지지 않아 색상범위의 평균값을 기초로 하였다.

4. 패션이미지와 관련된 베이지의 이미지 어휘

이미지는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 중에 색에 의한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색의 이미지는 인간의 생활가치와 경험, 욕구에 의해 개인의 감성과 심리적 자극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추상적이고 지적인 연상작용으로 인한 인간의 공통감성을 형용사 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베이지의 이미지를 조사하기위한 어휘를 수집하였는데 베이지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서 서적에서 '베이지'를 언급할 때 사용한 어휘와 패션이미지, 색채이미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미지 어휘를 수집하였다. 패션이미지 어휘 196개, 색채이미지 어휘 170개, 베이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베이지 이미지 어휘 114개, 컬러이미지사전에서 추출한 베이지 어휘 235개, 총 715개 어휘에서 높은 빈도순으로 정리해 25개로 축약하여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

패션이미지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어휘는 '깔끔한, 고급스러운, 단순한, 부드러운, 세련된, 평범한, 편안한, 화려한, 여성적인, 지적인, 활동적인, 섹시한'으로 나타났다, 색채 이미지에서는 '내추럴한, 현대적인, 부드러운, 상쾌한, 세련된, 소박한, 우아한, 즐거운, 캐

주얼한, 화려한, 로맨틱한, 클래식한'으로 나타났다. 베이지 이미지는 '건조한, 고풍스러운, 기본적인, 단순한, 매끄러운, 부드러운, 소박한, 자연스러운, 전원적인, 조용한, 천연의, 편안한, 한가로운, 향기로운, 향수의, 민속적인, 성실한, 우울한, 황폐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어휘는 소박한(20), 부드러운(14), 편안한(13), 향수의(9), 자연스러운(8), 단순한(8)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베이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휘는 크게 두 가지로 소박하고 평범한 의미,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의미로 나타난다. 강한 이미지를 주기 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우울하고 황폐한 이미지 어휘가 소수 나타난다.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베이지의 특성

1.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베이지의 색채특성

1) 전체 색채분포의 특성

2007년 S/S시즌부터 2010 F/W시즌까지 4년동안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의 컬렉션을 통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베이지의 색상과 색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4대 패션컬렉션에서 수집된 각 연도별, 컬렉션별 색채의 분포는 다음의 <표 8>와 같다. 수집된 전체 색채의 이미지의 수는 총 4,088개이며, S/S 시즌에 1,920개, F/W시즌에 2,168개였다. 각 컬렉션별로 수집된 색채는 파리 컬렉션 1,249개, 밀라노 컬렉션 1,338개, 런던 컬렉션 453개 및 뉴욕 컬렉션 1,048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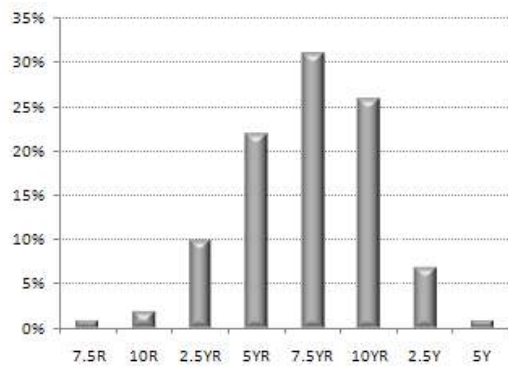
(1) 색상분포의 특성

베이지의 전체 색상별 분포는 <그림 5>과 같다. YR계열이 8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Y계열(7%), R계열(4%)순으로 나타났다. 패션에서 사용되는 베이지는 YR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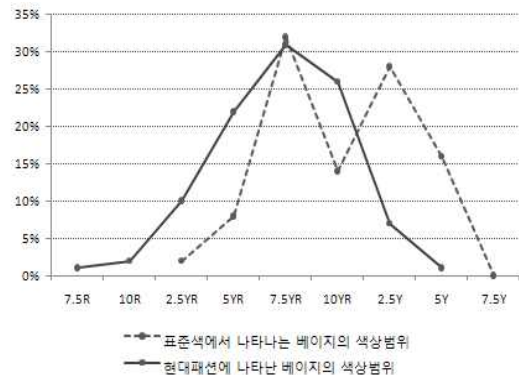
색상을 40색상으로 세분하여 빈도분포를 살펴보면 7.5YR(31%), 10YR(26%), 5YR(22%), 2.5YR(10%), 2.5Y(6%), 10R(3%), 7.5R(1%), 5Y(1%) 순으로 높

〈표 8〉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수집된 색채 자료의 분포

연도	컬렉션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합계 빈도(%)
	시즌						
'07	S/S		209	167	43	89	508
	F/W		73	119	36	49	277
	소계		282	286	79	138	785 (19)
'08	S/S		132	128	29	98	387
	F/W		155	153	53	99	460
	소계		287	281	82	197	847 (21)
'09	S/S		121	187	51	177	536
	F/W		195	194	90	208	687
	소계		316	381	141	385	1223 (30)
'10	S/S		172	180	50	87	489
	F/W		192	210	101	241	744
	소계		364	390	151	328	1233 (30)
합계			1249 (31)	1338 (33)	453 (11)	1048 (25)	4088 (100)



〈그림 5〉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색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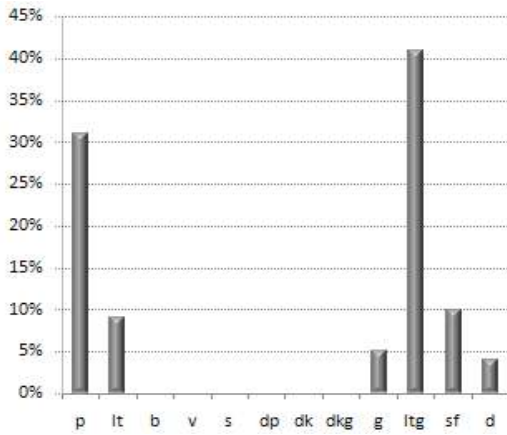
〈그림 6〉 표준색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베이지의 색상 범위 비교

게 나타났다. 5YR부터 10YR까지 집중적인 색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패션에서 활용되는 베이지의 색상 범위는 7.5YR에서 5Y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헌고찰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범위가 Y (48%)와 YR(52%)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6〉을 살펴보면 표준색에서 베이지의 색상이 7.5YR (28%)로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동일하지만 2.5Y부터 7.5Y까지의 색상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다르다.

(2) 색조분포의 특성

PCCS의 12색조 영역으로 베이지의 색조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색조는 ltg로 41%의 분포를 보였으며, p(31%), sf(10%), lt(9%), g(5%), d(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저채도의 밝은 색조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S/S시즌부터 2010 F/W시즌까지의 해외컬렉션에 나타난 베이지는 전체적으로 ltg와 p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색에서 나타나는 베이지의 색조분포와 비슷한 경향이다.



〈그림 7〉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색조 분포

2) 연도에 따른 색상/색조 분포의 특성

연도에 따른 색상 분포의 특성은 〈표 8〉과 같이 '07년부터 '10년까지 베이지의 사용비율이 꾸준히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도에 걸쳐 YR 계열의 색상에 집중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색상별로는 R과 YR계열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Y계열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주기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도에 따른 색조 분포의 특성은 〈표 9〉와 같이 나타난다. 연도별 큰 특징없이 전반적으로 p, ltg색조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p색조보다 ltg색조가 약간 더 큰 폭으로 사용비율이 늘어났다.

3) 시즌별 색상/색조 분포의 특성

S/S시즌의 색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7.5YR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YR(26%), 5YR(21%), 2.5YR(9%), 2.5Y(7%), 10R(3%), 5Y(1%) 계열 색상 순으로 나타났다. F/W시즌의 색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7.5YR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YR

〈표 8〉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연도별 색상 분포

연도 \ 색상	2007	2008	2009	2010	합계 (빈도/%)
R	12 (0)	18 (0)	52 (1)	67 (2)	149 (4)
YR	667 (16)	789 (19)	1064 (26)	1112 (27)	3632 (89)
Y	106 (3)	40 (1)	105 (3)	50 (1)	301 (7)
RP	0 (0)	0 (0)	2 (0)	4 (0)	6 (0)
합계	785 (19)	847 (21)	1223 (30)	1233 (30)	4088 (100)

〈표 9〉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연도별 색조 분포

연도 \ 색조	2007	2008	2009	2010	합계 (빈도/%)
p	223 (5)	324 (8)	366 (9)	341 (8)	1254 (31)
lt	39 (1)	58 (1)	165 (4)	116 (3)	378 (9)
b	0 (0)	1 (0)	0 (0)	0 (0)	1 (0)
v	0 (0)	0 (0)	0 (0)	0 (0)	0 (0)
s	0 (0)	0 (0)	3 (0)	0 (0)	3 (0)
dp	0 (0)	0 (0)	0 (0)	0 (0)	0 (0)
dk	1 (0)	0 (0)	1 (0)	0 (0)	2 (0)
dkg	0 (0)	0 (0)	0 (0)	0 (0)	0 (0)
g	52 (1)	45 (1)	102 (2)	12 (0)	211 (5)
ltg	345 (8)	298 (7)	421 (10)	597 (15)	1661 (41)
sf	77 (2)	87 (2)	105 (3)	137 (3)	406 (10)
d	48 (1)	34 (1)	60 (1)	30 (1)	172 (4)
합계	785 (19)	847 (21)	1223 (30)	1233 (30)	40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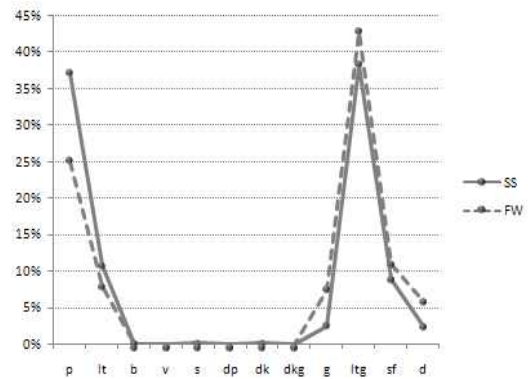
〈표 10〉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시즌별 색상 분포

시즌 색상	S/S	F/W	합계 빈도(%)
2.5R	2 (0)	1 (0)	3 (0)
5R	7 (0)	8 (0)	15 (0)
7.5R	9 (0)	19 (1)	28 (1)
10R	52 (3)	51 (2)	103 (3)
2.5YR	182 (9)	215 (10)	397 (10)
5YR	402 (21)	504 (23)	906 (22)
7.5YR	607 (32)	654 (30)	1261 (31)
10YR	503 (26)	566 (26)	1069 (26)
2.5Y	132 (7)	113 (5)	245 (6)
5Y	17 (1)	28 (1)	45 (1)
7.5Y	5 (0)	2 (0)	7 (0)
10Y	1 (0)	2 (0)	3 (0)
2.5RP	0 (0)	0 (0)	0 (0)
5RP	0 (0)	0 (0)	0 (0)
7.5RP	0 (0)	1 (0)	1 (0)
10RP	1 (0)	4 (0)	5 (0)
합계	1920 (100)	2168 (100)	4088 (100)

(26%), 5YR(23%), 2.5YR(10%), 2.5Y(5%), 10R(2%), 5Y(1%), 7.5R(1%)계열 색상 순으로 나타났다. 시즌에 따른 색상 분포를 살펴보면 S/S시즌과 F/W시즌의 베이지의 색상 분포는 비슷하여 계절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나 〈표 10〉와 같이 S/S시즌보다 F/W시즌에 베이지 색상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S시즌에는 ltg색조가 3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p(37%), lt(11%), sf(9%), g(3%), d(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W시즌에는 ltg색조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25%), sf(11%), lt(8%), g(7%), d(6%) 순으로 나타났다.

시즌에 따른 색조 분포의 차이는 색상 분포와 마찬가지로 각 색조별 분포는 비슷하지만 〈그림 9〉와 같이 p, lt의 고명도 저채도 영역은 F/W시즌보다 S/S시즌에 다소 높은 분포를 보였고, ltg, sf색조의 중·저명도 저채도 영역은 F/W시즌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S/S시즌에는 밝고 옅은 색조가, F/W시즌에는 좀 더 어둡고 탁한 색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지는 색상분포는 비슷하되 시즌에 따라 색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9〉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시즌별 색조분포

2.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베이지의 배색특성

배색이란 둘 이상의 색을 아름답게 조합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색을 의도적으로 조합시켜 디자인 전체의 효과를 높이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색은 각각 다른 이미지와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과 배색되느냐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베이지를 사용한 패션으로 선정된 컬렉션 사진 중 베이지와 함께 배색된 색상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배색이

사용된 경우 배색의 색상과 색조 특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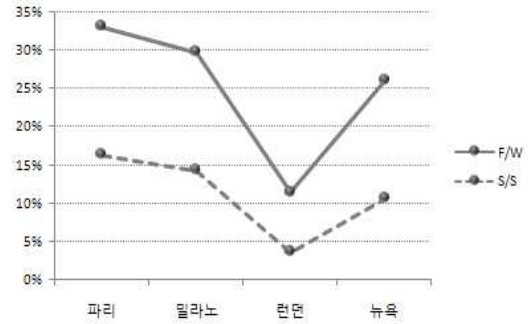
1) 배색의 사용빈도

전체 베이지 사례 수 4,088개에서 수집된 전체 배색 이미지의 수는 총 1,666개(41%)이며, S/S시즌에 743개, F/W시즌에 923개였다. 컬렉션별로 수집된 색채는 파리컬렉션 550개(44%), 런던컬렉션 189개(42%), 뉴욕컬렉션 432개(41%), 밀라노컬렉션 495개(37%)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1순위를 살펴보면 '07년에는 뉴욕(50%), '08년에는 밀라노(45%), '09년에는 파리(45%), '10년에는 런던(4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2차색 중에서 갈색의 배색 빈도(구소형 2007)가 23.4%인 것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정리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이상으로 전체 의복에서 베이지의 사용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중심으로 배색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배색이 없이 베이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59%로 배색이 있는 경우의 41%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베이지를 주조색으로 사용한 복식의 경우에는 배색을 이용하는 것과 베이지 단색으로 패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베이지 패션에 활용된 배색의 사용 빈도를 시즌별로 살펴보면 F/W시즌에 55%로 45%인 S/S시즌보다 많은 배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성

향에 있어서 가을, 겨울 시즌에 더 많은 배색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지가 검정과의 배색이 30%의 비율로 가장 높은데, 검정이 S/S보다 F/W에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정리한 내용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시즌별 베이지 배색 비교

2) 배색의 색상/색조 분포

베이지가 주조색으로 사용된 복식에 활용된 배색 색상을 먼셀 색체계인 R, YR, Y, GY, G, BG, B, PB, P, RP의 유채색군과 Bk, Gy, W의 무채색 군의 총 13가지 색상으로 분류하여 베이지와의 배색 관계를 살펴보았다.

베이지 패션에서 활용된 전체적인 색상 배색을 보면 무채색인 Bk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표 11>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배색 분포

연도	컬렉션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합계 빈도(%)
	시즌						
'07	S/S		79 (38)	53 (32)	14 (33)	39 (44)	185 (35)
	F/W		46 (63)	58 (49)	14 (39)	30 (61)	148 (53)
	소계		125 (44)	111 (39)	28 (35)	69 (50)	333 (39)
'08	S/S		50 (38)	56 (44)	12 (41)	33 (34)	151 (46)
	F/W		72 (46)	71 (46)	21 (40)	47 (47)	211 (43)
	소계		122 (43)	127 (45)	33 (40)	80 (41)	362 (39)
'09	S/S		62 (51)	68 (36)	11 (22)	67 (38)	208 (38)
	F/W		79 (41)	65 (34)	43 (48)	71 (34)	258 (38)
	소계		141 (45)	133 (35)	54 (38)	138 (36)	466 (41)
'10	S/S		80 (47)	61 (34)	21 (42)	37 (43)	199 (41)
	F/W		82 (43)	63 (30)	53 (52)	108 (45)	306 (41)
	소계		162 (45)	124 (32)	74 (49)	145 (44)	505 (41)
합계			550 (44)	495 (37)	189 (42)	432 (41)	1666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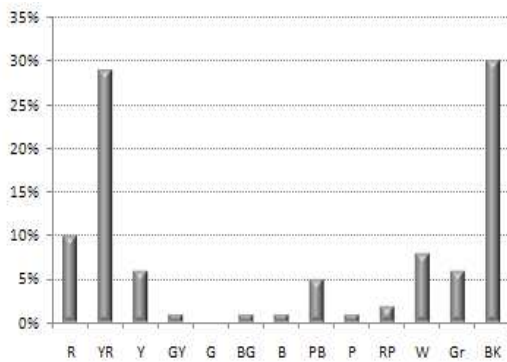
다음으로 YR(29%), R(9%), W(8%), Gy(7%), Y(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활용 빈도를 보인 배색 색상은 G(0%), GY(1%), BG(1%), P(1%) 순으로 나타났다.

배색조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무채색 배색(46%)이 많으며 유채색 배색은 YR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이지와 검정과의 배색은 명도차이가 커서서로 대비되는 효과를 주고 베이지와 하양과의 배색은 명도차이가 적어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다. 유채색은 베이지와 유사한 색상 계열의 톤온톤(tone on tone)배색이 많이 나타나 안정적이며 편안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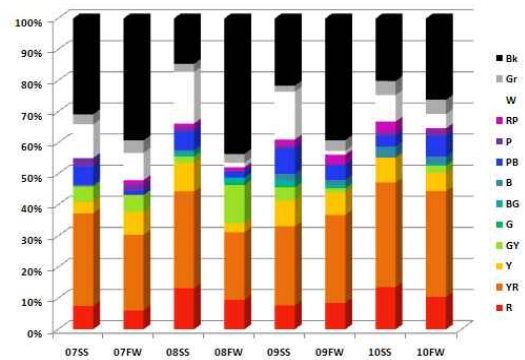
〈그림 11〉, 〈그림 12〉는 베이지 패션에 활용된 색

상별 배색을 시즌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배색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S/S시즌에 유채색의 빈도가 높아지고 F/W시즌에 무채색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색상분포는 시즌에 무관하게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유채색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S/S시즌에는 대조색인 PB와 무채색 중에서 W의 배색사용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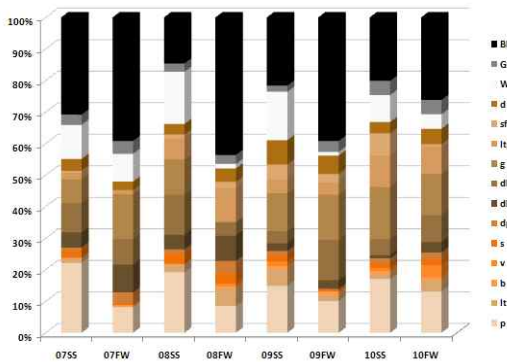
베이지 패션에 활용된 전체적인 배색의 색조를 보면 p(14%), g(11%), dkg(8%)로 나타나며 시즌별로 차이가 있었다. S/S시즌에는 주로 고명도의 p 색조가 사용되고 F/W시즌에는 저명도의 g, dkg 색조가 주된 배색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리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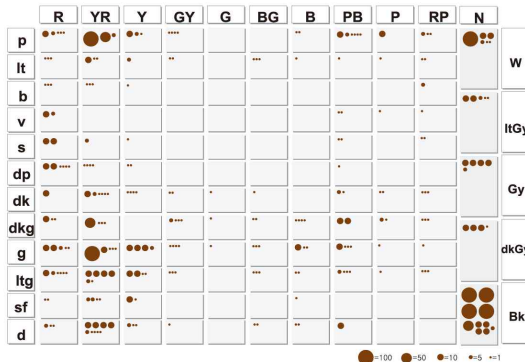
〈그림 11〉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배색 색상 분포



〈그림 12〉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시즌별 베이지 배색 색상 분포



〈그림 13〉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시즌별 베이지의 배색 색조 분포



〈그림 14〉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배색 색상/색조 분포

용은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패션에 나타난 베이지 배색 특성을 분석한 결과 Bk을 중심으로 무채색이 배색에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채색은 동색인 YR계열이 가장 높았고 R과 Y계열의 유사색상 배색이 많이 나타났다. 계절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F/W 시즌이 S/S 시즌보다 조금 더 많은 배색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S/S시즌에는 주로 고명도의 p톤이 사용되고 F/W시즌에는 저명도의 g, dkg 톤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베이지의 이미지

1. 베이지의 대표 단색과 이미지

현대패션의 베이지 색채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이지의 단색과 배색 이미지를 설문조사하기 위한 대표색을 선정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베이지 색채 데이터 4,088개의 색상과 색조 분포 분석을 통해 출현 빈도가 높은 색상과 색조를 선정한 결과, 총 37개의 베이지 대표색이 선정되었다.

베이지의 대표 단색의 색상은 5YR, 7.5YR, 10YR을 선정하였고 색조는 p, lt, ltg, sf 4가지를 선정하였다.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12가지 경우의 색 '5YR/p, 5YR/lt, 5YR/ltg, 5YR/sf, 7.5YR/p, 7.5YR/lt, 7.5YR/ltg, 7.5YR/sf, 10YR/p, 10YR/lt, 10YR/ltg, 10YR/sf'을 베이지 대표 단색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추출한 이미지 형용사와 37개의 베이지 대표색의 자극물을 제시하고, 대표 배색을 보고 우선순위의 어휘 3개를 선정하게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베이지의 이미지를 규명하였다. 디자인분야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거쳐 '딱딱한, 칙칙한'의 이미지 어휘를 추가하여 총 27개의 대표이미지 어휘로 '건조한, 기본적인, 단순한, 부드러운, 소박한, 우아한, 자연스러운, 전원적인, 친연의, 편안한, 향수의, 현대적인, 지적인, 칙칙한, 클래식한, 고급스러운, 우울한, 민속적인, 성실한, 활동적인, 색시한, 즐거운, 로맨틱한, 황폐한, 여성스

러운, 평범한, 딱딱한'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디자인관련 전문가인 50인에게 실시하였고 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행하였다.

12개의 베이지의 대표 단색과 색 값은 다음의 <표 12>와 같고, 설문조사한 결과 베이지 단색의 이미지는 <표 13>와 같이 전체적인 베이지의 이미지는 현대적인(8.8%), 고급스러운(8.2%), 부드러운(8.1%)의 순서로 나타났다. 베이지 단색 이미지는 부드러운(13.1%), 건조한(12.1%), 단순한(10.1%)의 순서로 나타났고, 배색 이미지는 현대적인(9.6%), 고급스러운(8.6%), 부드러운(7.5%)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2>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대표색

색상 색조	5YR	7.5YR	10YR
ltg	5YR 7/3	7.5YR 7/3	10YR 7/3
sf	5YR 7/4	7.5YR 7/4	10YR 7/4
p	5YR 8/3	7.5YR 8/3	10YR 8/3
lt	5YR 8/4	7.5YR 8/4	10YR 8/4

<표 13>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대표 단색의 이미지

색상	대표색	이미지
5YR		부드러운
7.5YR		평범한
10YR		클래식한

2. 베이지의 대표 배색과 이미지

베이지 단색과의 배색 색상은 무채색 Bk, Gy, W 을 포함하여 R, YR, Y, G, B, PB, P로 총 10개를 선정하였고 색조의 선정은 색상별로 빈도가 높거나 특징적으로 나타난 색조를 선정하였다. R계열은 다른 색상과 달리 다양한 색조의 활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v, dp, ltg 색조를 선정하였다. Y계열은 베이

지와 배색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이지만 색조는 p과 g를 중심으로 ltg, sf의 색조가 사용되어 sf, lt, g, d, dkg 색조를 선정하였다. Y계열은 빈도수는 YR보다 적지만 유사한 분포를 보여 d, g, dkg를 선정하였다. GY, G, B, PB, P계열은 빈도수는 적지만 특징적인 분포를 보인 ltg, g, dkg, p 색조를 선정하였다. 무채색계열은 Bk, Gy, W별로 각각 세 가지씩 총 9가지를 대표배색으로 선정하였다.

실문에서 나타난 베이지 대표 배색은 <표 14>와 같다.

<표 14>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의 대표 배색과 이미지

활동적인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평범한	민속적인	부드러운	건조한
고급스러운	소박한	지적인	고급스러운
활동적인	현대적인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기본적인	클래식한	현대적인	
여성스러운	고급스러운	현대적인	
여성스러운	지적인	편안한	

3. 베이지의 배색 이미지별 패션 스타일

베이지의 배색 이미지를 각 배색에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온 이미지순으로 다시 정리하여 ‘현대적인(3), 여성스러운(3), 고급스러운(3), 부드러운(2), 지적인(2)’으로 도출하였다. 베이지의 다섯 가지 패션 스타일을 토대로 베이지 패션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 보았다. 패션 스타일 선정은 대표 배색이 사용된 패션스타일을 실루엣, 소재, 디테일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분류하였다.

1) ‘현대적인’ 이미지

‘현대적인’이 가장 많이 언급된 배색의 패션스타일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표 15>와 같이 실루엣이 직선적이고 장식이 절제되어 있는 모던한 스타일과 과하지 않은 장식과 여성의 신체라인을 살린 실루엣을 통해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루엣은 단조롭지만 불규칙적이고 자연스러운 주름을 통해 편안한 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패션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배색이 주는 이미지와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5〉 '현대적인' 이미지의 패션 스타일



2) '여성스러운' 이미지

'여성스러운'이 가장 많이 언급된 배색의 패션스타일을 살펴보면 〈표 16〉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스타일, 실루엣이 약간 과장된 아방가르드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스포티한 스타일로 나타난다.

패션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배색이 주는 이미지는 여성스러운데 반해,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였다.

3) '고급스러운' 이미지

'고급스러운'이 가장 많이 언급된 배색의 패션스타일을 살펴보면 〈표 17〉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스러운 스타일, 스포티 스타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미지는 없으나 복종에서 캐주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룹으로 나뉜다.

패션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배색이 주는 이미지는 여성스러운데 반해,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였다.

패션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배색이 주는 이미지는 고급스러운데 반해,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은 활동적인 이미지가 강하였다.

〈표 16〉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패션 스타일



〈표 17〉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패션 스타일



4) '부드러운' 이미지

'부드러운'이 가장 많이 언급된 배색의 패션스타일을 살펴보면 <표 18>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페미닌한스타일과 내추럴한 스타일, 세미 클래식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러플이나 개더, 주름 등을 이용한 장식과 디테일이 특징적이고 부드럽고 드레이프성이 강한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베이지 배색과 비교해 보면 배색되는 색조는 유사하나 색상이 YR계열로 베이지와 동일색상으로 배색될 경우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패션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배색이 주는 이미지와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스타일모두 부드러운 이미지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8> '부드러운' 이미지의 패션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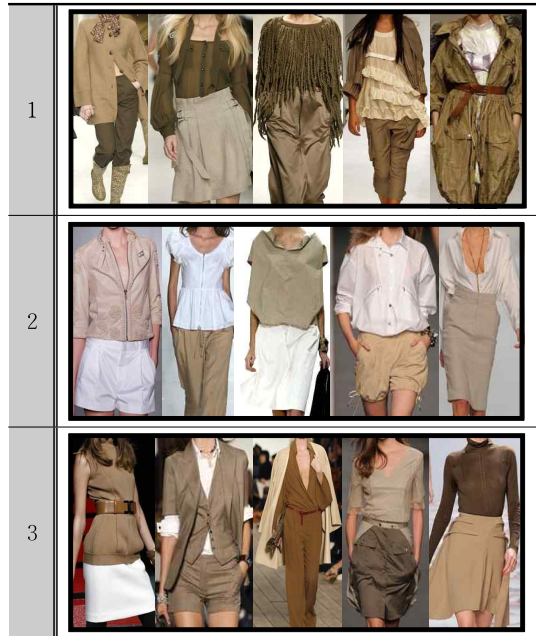


5) '지적인' 이미지

'지적인'이 가장 많이 언급된 배색의 패션스타일을 보면 <표 19>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지 스타일, 스포티 스타일, 쉬크 스타일로 나누어진다. 패션스타일에서는 '지적인' 이미지도 나타나지만

그와 상반되는 캐주얼한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9> '지적인' 이미지의 패션 스타일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의 결과, 베이지는 갈색과 비슷하게 두 가지 이상의 보색이 혼합될 때 만들어지는高明도, 저채도 톤의 색이며 일반적으로 베이지의 색상 범위는 2.5YR에서 5Y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 미국, 독일과 달리 베이지가 Y계열로 범주가 정해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YR계열로 표준화되어 있었다. 베이지는 혼합색이기 때문에 탁한 색조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표준색에서 베이지는 한국과 일본의 베이지보다 채도가 조금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조사연구를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베이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에서 나타난 베이지는 주로 7.5YR을 중심으로 5YR에서 10YR의 분포를 보이며 색조는 주로 ltg, p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연도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7.5YR의 색상과 ltg, p 색조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점차적으로 베이지의 사용이 늘어나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시즌에 따른 색상의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색조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p, ltg가 많았으며 S/S 시즌에는 p 색조가 F/W시즌에는 g 색조 의 사용이 많았다.

넷째, 컬렉션별 베이지의 색상과 색조영역에서 모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베이지의 사용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복식에 나타난 베이지는 연도나 시즌, 컬렉션별 특성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5YR에서 10YR의 색상 영역을 중심으로 ltg, p 등의 색조 영역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베이지 패션에 나타난 배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배색의 사용 빈도가 41%로 나타나 베이지를 주색으로 사용한 복식의 경우에는 배색을 사용하는 경우와 베이지 단색을 사용해 패션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계절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F/W 시즌이 S/S 시즌보다 조금 더 많은 배색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에 활용된 전체적인 베이지 배색을 보면 무채색인 Bk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YR(29%), R(9%), W(8%), Gr(7%), Y(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활용 빈도를 보인 배색 색상은 G(0%), GY(1%), BG(1%), P(1%)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지 패션에 활용된 전체적인 색조를 보면 p(14%), g(11%), dkg(8%)로 나타나며 시즌별로 차이가 있었다. S/S시즌에는 주로高明도의 p톤이 사용되고 F/W시즌에는 저명도의 g, dkg 톤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베이지로 표현된 현대패션의 이미지는 '현대적인',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지적인'의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현대적인', '부드러운'은 배색의 이미지와 패션스타일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스러운'은 패션스타일에서 '중성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지적인'은 패션스타일에서 지적

인과 반대되는 '캐주얼'한 이미지도 동시에 나타났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패션스타일에서는 '활동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베이지의 단색 이미지와 배색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된 패션스타일을 규명하여 제시함으로써 베이지 색채이미지를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베이지'라는 용어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문헌이 주로 서양문화 및 서양복식에 치중되어 고찰되었으므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색채계획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규명되는 베이지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원경미, 김영인 (2001), 국내 패션업계에서 활용하는 색명과 색채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5(1), pp. 37-48.
- 2) Heller, E. (2002), *Wie Farben auf Gefühl und Verstand wirken*, 이영희 역 (2004), *색의 유희-색채심리와 색채 마케팅*, 서울: 예담.
- 3) Pastoureaux M. (1999), *Dictionnaire des couleurs de notre temps*, 전창림 역 (2003), *색의 비밀-색의 상징성과 사회적 의미*, 서울: 미술문화.
- 4) 구소형 (2007), 감색으로 표현된 패션의 이미지와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Birren, F., *Color and Human Response*, 김진한 역 (2003), *색채의 영향*, 서울: 시공사.
- 6) Lenclos, Jean, P., *The Geography of Color*, 김기환 역 (1996), *랑크로의 색채디자인*, 서울: 국제.
- 7) 이만영 외 (2002), 섬유패션 색채의 한국어 계통색이름 체계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6(2/3), pp. 1-24.
- 8) 한국색채연구소, 자료검색일 2009. 9. 15, <http://www.kcri.or.kr>
- 9)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자료검색일 2009. 10. 20, <http://www.kats.go.kr>
- 10) TEXAS PRECANCEL CLUB, 자료검색일 2009. 11. 9, <http://www.anthus.com>
- 11) RAL COLOR, 자료검색일 2009. 11. 15, <http://www.ral-farben.de>
- 12)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자료검색일 2009. 10. 11, <http://design.seoul.go.kr/main.php>